

현실 속에 존재하는 실제의 교회를 '건강한 교회'라고 판단할 때는 여러 기준이 적용된다. 적용되는 기준을 그 성격에 따라 분류해 보면, 시대적 문화적 상황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이는 유동적인 기준도 있고, 교회의 본질적인 부분에 해당하는 것이라 전혀 흔들림이 없는 부동의 기준도 있다. 여러 기준 중 '균형'은 부동의 기준에 해당된다.

아무리 뛰어난 강점을 가진 개인이나 조직이라 할지라도 치명적인 약점이 있으면 그 약점으로 인해 전체의 균형은 무너지고 만다. 균형이 무너진 개인이나 조직이 건강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한번 무너진 균형을 회복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는 법이다.

우리 주변에서 균형 잡힌 교회의 모델을 찾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런 상황을 생각할 때 지면을 통해 소개되는 '지구촌교회(담임: 조봉희 목사)'는 여러 면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상의 모든 교회가 과정 속에 있는 교회이기에 지구촌 교회에도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감히 균형 잡힌 교회라고 평가해도 무리는 없다.

균형 잡힌 목회 사역의 모델



독특한 이름 덕에 생긴 일들

'지구촌'이라는 말이 지금은 익숙하지만, 지구촌교회가 개척될 1988년 4월에는 매우 낯선 단어였다. 그래서였을까? 이 독특한 이름 덕분에 조 목사와 지구촌교회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겪었다. 목동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던 초기, 단지 한 편에 자리 잡고 시작된 이 교회를 향해 대놓고 신흥 이단 집단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심지어 통일교 교회라는 오해까지 받았다. 독특한 이름 덕분에 치른 값이 만만치 않았다.

하지만 이런 어려움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이름이 같다는 이유만으로 형제교회로 자매결연을 맺는 일도 있었다. 바로 이동원 목사의 지구촌교회와의 결연이었다. 당시의 일을 조 목사는 다음과 같이 회상한다.

“제가 지구촌교회라는 이름으로 개척한 후 6년쯤 지났을 때입니다. 미국에서 귀국하신 이동원 목사님이 똑같은 이름으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목사님께 팩스를 한 장 보내 드렸습니다. ‘저희 교회가 원조 지구촌교회인데 같은 이름을 써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말입니다. 그랬더니 이 목사님에게 답신이 왔습니다. 처음에는 지구촌교회라는 이름이 한국에 없는 줄 아셨답니까. 이름을 정한 후에 저와 저희 교회에 대해 아셨답니까. 팩스를 받고 무척 반가워서 답신을 해오셨는데 그것이 계기가 되어 두 교회가 형제교회로 결연하게 되었습니다.”

당시는 교단 간의 교류가 그리 활발하지 않았던 때였다. 그래서 장로교와 침례교 사이에서 맺어진 결연이라 하여 국민일보에 대대적으로 보도되기도 했다. 결연 후 조 목사는 이 목사와 멘토링 관계를 맺고 지금까지 도움을 주고받고 있다.

그런데 조 목사가 이렇게 별난 이름을 정한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 교회는 철저히 선교 지향적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목회철학 때문에 '지구촌'이란 이름을 짓게 된 것이다. 이름에서부터 교회 전체의 구조나 소그룹에 이르기까지 그저 한 자리에만 정주하는 것이 아니라 땅 끝을 지향해야 한다는 것이 조 목사의 목회철학이다. 그래서 지구촌이란 이름을 가지게 되었고, 자신의 교회당을 짓기 이전에 해야 할 수도 없이 많은 선교지 교회와 센터를 건립했다.

자칫 자신의 목회 상황에만 집중하다 보면 교회가 본질적으로 감당해야 할 사역이나 사명에 대한 노력이나 의식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안으로 모여드는 것'과 '밖으로 나가는 것'의 균형을 잃어버리면 죽음의 바다 사해처럼 생명을 잃은 조직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장치를 내부에 두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조봉희 목사

신학교에서 제자훈련지도자세미나까지

조 목사가 제자훈련 목회에 대한 결심을 하고 실제로 제자훈련 사역을 시작하기까지는 조금 별난 이력을 가지고 있다. 대개의 경우 제자훈련지도자세미나를 통해 제자훈련 목회에 대한 강한 도전을 받고 입문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조 목사는 신학교 시절 옥한흠 목사 아니 옥한흠 교수로부터 '제자훈련'과 '교회론'에 대해 직접 강의를 들었다.

“저는 신학교 재학 중에 옥한흠 목사님을 만났고, 옥 목사님께 제자훈련과 교회론을 배웠습니다. 우리나라 신학교에서 제자훈련을 가르치신 건 옥 목사님이 최초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당시 젊은 목회자들은 제자훈련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가르쳐 주실 분이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을 생각하면 저는 매우 운이 좋았습니다. 옥 목사님을 통해 저는 실제적인 제자훈련 목회에 대해 배울 수 있었습니다.”

신학교 시절 이런 경험은 건강한 교회와 목회에 대한 틀을 정립하는 데 큰 기반이 되었다. 교회개척에 관한 뚜렷한 목표를 세운 조 목사는 '개척이 소명이다'라고 결심하고, 4년의 부목사 생활 후에 아파트 단지가 한창 조성되던 목동에 교회를 개척했다. 전통적인 가옥 구조에 익숙한 사람들보다는 서구화된 아파트 생활에 익숙한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소그룹이나 제자훈련에 빨리 적응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다.

이처럼 개척 초기부터 제자훈련의 철학을 기반으로 교회의 모든 것을 준비하고 출발했다. 이렇게 제자훈련과 인연을 맺은 조 목사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제자훈련을 소개하고 동료 목회자들에게 제자훈련지도자세미나를 추천했다. 제자훈련으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던 시기라서 조 목사의 권면은 영향력이 있었고, 그 덕분에 목회의 큰 전환기를 맞이한 동료들도 많았다.

그런데 1991년 조 목사 스스로 제자훈련지도자세미나에 참



석했다. 이미 신학교에서 충분히 배웠지만, 목회 현장에서 제자훈련에 대해 재정립할 필요가 있었고 새로운 도약의 계기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지금도 해마다 제자훈련지도자세미나를 참석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조 목사는 세미나 참석을 통해 '제자훈련의 축복된 가능성'을 보았다고 한다.

“그때 세미나를 참석했을 때, ‘그래, 제대로 배웠구나. 원리대로 하고 있었어!’ 라는 생각을 먼저 했습니다. 그리고 제자훈련을 통해 성숙해 갈 교회의 미래에 대한 확신을 얻었습니다. 제자훈련은 교회를 참으로 건강하게 만드는 길이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미 자신의 뜻을 확고히 세우고 성공의 길을 걷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인지 자칫 깊은 개인의 우물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 점검하고 반성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본질에 대한 강한 집착과 균형 의식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끊임없는 자기반성과 성찰을 바탕으로 한 균형잡힌 목회사역이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결과이다. 지구촌교회에는 조 목사를 닮은 균형 잡힌 리더들이 많다. 건강한 환경에서 건강한 리더들이 배출됐기 때문이다.

평신도지도자를 세웠으면 믿고 맡겨라

그런데 제자훈련 목회를 하는 교회들 간에도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어떤 지도자를 세울 것인가에 대해서 서로 다른 기준을 가질 수 있다. ‘독립적 신앙’을 제자훈련의 극치라고 강조하는 조 목사는, 스스로 알아서 사역하는 지도자라야 제대로 훈련된 지도자라고 말한다. 제자훈련의 목적이 지도자를 세우는 데 있기에 훈

련을 통해 세워진 평신도지도자들에게 할 수 있는 모든 사역들을 위임해야 한다는 것이 조 목사의 목회철학이다. 믿고 맡기지 못한다면 제자훈련이 실패했거나 제자훈련 철학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조 목사는 ‘그 사람의 기준이 그 사람의 수준이다’라고 말한다. 즉, 사람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준에 이르기 위해 스스로 노력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수준에 이르는 것이다. 제자훈련 목회에 있어서도 이 원리는 적용된다. 어떤 지도자를 세울지 목회자가 가지고 있는 기준에 따라 제자훈련의 수준이 정해진다. 또한 이렇게 세워진 평신도지도자는 요구되는 기준에 따라 사역하기에 당연히 그 기준과 수준 이상의 사역을 하기 마련이다.

소그룹뿐만 아니라 모든 사역에 대한 위임은 절대적이다. 모두 자발적으로 알아서 하는 사역이기에 관여하거나 간섭할 필요가 없다.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조직이고 사역이기에 리더가 소신 있게 사역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회자의 몫이다. 이토록 독립적 신앙을 강조하는 조 목사가 가장 싫어하는 말은 “어떻게 할까요?”이다. 이렇게 질문을 해오는 사람들에게는 늘 “알아서 하세요”라고 반응한다.

현재 지구촌교회가 사용하고 있는 선교센터의 건축을 시작할 때의 일이다. 대개의 경우 당회가 중심이 되어 건축을 주관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런데 지구촌교회의 경우는 달랐다. 건축위원회라는 별도의 기구가 만들어졌는데, 그 위원회는 실제 건축 전문가들에 의해 구성되었다.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한 초신자도 포함되었다. 그런데 당회원들은 그 위원회에 포함되지 않았다.

하지만 건축위원들이 모이는 날이면 바로 옆방에서 당

회가 모였다. 건축위원회가 무엇을 하는지 감시하기 위해서 아니라, 건축위원회에서 조정되고 결정되는 내용들을 실제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재정적인 능력이 교회에 있는지에 대해 판단하기 위해서였다.

그렇게 건축위원회와 당회는 각자에게 주어진 기능 안에서 협력했다. 그 일은 1996년 3월부터 시작되어 2000년 9월 입당할 때까지 계속됐다. 흔히 ‘IMF위기’라고 불렸던 그 악몽 같은 시기에도 이 원칙은 흔들리지 않았다. 철저한 사역 위임이 보편화된 교회가 아니라면, 제자훈련을 통해 지도자들이 바로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면, 상상하기 힘든 그림이다. ‘그 사람의 기준이 그 사람의 수준이다’라는 말의 의미를 한 번 더 곱씹어 보게 하는 대목이다.

쉬운 것보다 해야 할 것에 집중하라

지구촌교회의 여러 특징 중 하나는 남자들이 많다는 점이다. 전체 세례교인 2,360명 중 981명이 남자 교인이다. 한국 교회는 여성 중심적이다. 남자들이 적용할 수 있는 자리가 많지 않다.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는 목회자는 많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노력하고 다양한 시도를 하는 목회자는 많지 않다.

이런 기형적 현실을 인식하면서도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우선, 여성 중심으로 교회가 운영되어도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문제 해결에 적극성을 띠지 않는 경향이 있다.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판다는 말처럼 아직 목이 타지 않아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을 위해 나서지 않는지도 모른다. 그런데 막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서도 적당한 모델교회를 찾기가 힘들다. 교회의 다른 사역에 비해 남자들을 대상으로 한 사역의 노하우도 매우 적다.

이런 상황의 해결을 위해 조 목사가 강조하는 것은 두 가지이다. 첫째는 ‘메시지’이다. 삶의 영향력을 강조하는 리더십과 접목된 메시지가 필요하다. 남자들의 경우 자신의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메시지를 선호한다. 삶에 대한 직접



적인 교훈이 담긴 메시지는 남자들이 지구촌교회로 모여들게 한 훌륭한 장치였다.

둘째는 남자들의 ‘기능성’과 ‘위치’를 살려주어야 한다. 교회는 특별히 이 부분에 집중한다. 남자들이 할 수 있는 여러 사역의 자리를 만들고, ‘지구촌 남성의 날’과 같은 남자 성도들만을 위한 특별한 모임을 준비한다.

매년 새로운 주제로 모이는 ‘지구촌 남성의 날’의 경우 남자들이 겪는 삶의 구체적인 주제를 정해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로부터 명쾌한 메시지와 노하우를 듣고, 남자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해서도 확인한다. 이런 모임을 통해 교회뿐 아니라 가정이 튼튼해지는 유익을 누리고 있다.

가장이 살아야 가정이 사는 법이다. 쉬운 것을 좇지 않고 해야 할 것을 좇았기에 교회 전체적으로 남녀 성비의 균형뿐 아니라 전체 사역의 균형도 이룰 수 있었다.

철학은 가장 일상적인 것에서 배운다

목회철학이 적용되어야 하는 한계는 어디까지일까? 조 목사의 경우, 교회가 사용하는 건물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구체적으로 목회철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교회가 건물에 대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는냐에 따라 그 건물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그 기준에 익숙해지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

‘교회의 문은 열려 있어야 한다’는 것과 ‘건물을 소유하는 교회가 아니라 건물을 사용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건물에 대한 조 목사의 철학이다. 교회가 철저히 선교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건물에 갇힌 교회가 아니라 건물을 사용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그래야 건물을 지역 사회에 내어줄 수 있다. 건물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역 사회의 다양한 요구를 최대한 해결할 수 있도록 준비되고 운영되어야 한다.

연고에 상관없이 선교관을 개방하는 교회도 흔치 않지만 두 개의 층을 선교사들을 위해 내어주는 교회도 흔치 않다.



“ 끊임없는 자기반성과 성찰을 바탕으로 한
균형잡힌 목회사역이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지구촌교회에는 조봉희 목사를 닮은 균형 잡힌 리더들이 많다.
건강한 환경에서 건강한 리더들이 배출됐기 때문이다. ”

생활에 필요한 모든 설비를 갖춘 멋진 선교관들을 바라볼 때마다 지구촌교회의 성도들은 이 교회가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지를 어떤 메시지보다 강하게 느낄 것이다. 또한 지역 사회를 위해 개방한 도서관은 대성공을 거두고 있다. 자유 열람실과 개인 열람실로 구분되어 있고 최적의 환경을 실비로 제공하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다양한 기능을 가진 큰 건물이 절대 소수의 유급직원과 다수의 자원봉사자들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고 하니 놀라운 일이다. 선교 센터가 건립되고 입당 예배를 드리던 2000년 3월, 지구촌교회 지도자들은 기대 이상의 감격적인 경험을 한다. 선교센터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 모집에 80여 명의 헌신자들이 지원한 것이다. '과연 될까? 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자원봉사자 모집을 공고했는데 결과는 감격 그 자체였다.

조 목사는 이 일을 통해 '제자훈련이 참 무섭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다. 훈련을 통해 변화되고 성숙한 사람들이 있으면 불가능한 사역이 없다는 것을 발견했다. 지상 10층, 지하 3층의 작지 않은 규모인데,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선교센터의 운영은 자원봉사자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어떤 조직이든 구성원들에게서 단기적인 집중력을 끌어낼 수는 있다. 마치 큰 규모의 국제대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 국민들이 보여주는 세계 최고의 시민 의식처럼 말이다. 하지만 제자훈련을 통해 마음의 근본부터 변화된 이들의 헌신은 질적인 차이를 보인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힘이다.

방법에서 벗어나 원리를 잡아라

한국 교회의 동료 목회자들을 향해 조 목사가 강조하는 것은, 방법 중심의 목회 틀에서 벗어나 철저히 원리를 따르는 목회를 하라는 것이다. 새로운 도구나 방법을 찾아

나서기보다 목회의 본질적 원리에 더 집중하라는 것이다. 제자훈련에 대해서도 '프로그램'이나 '코스워크'와 같이 도구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지 말고, 지도자를 세우는 것이 본질적인 사역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라고 강조한다.

목회자마다 주어진 은사가 다르고 강점과 약점이 있기 마련이다. 따라서 주어진 처지와 형편, 그리고 은사에 따라 사역을 해야 한다. 표면적 모습이 다를지라도 본질적 원리에는 차이가 없다. 아니 차이가 있을 수 없다. 혹시 이 부분에 차이가 있다면 그것은 내용의 문제가 아니라, 방법적인 면에서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에 중점을 두느냐에 따른 집중의 문제일 것이다.

조 목사가 강조하는 또 하나는, 교회가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지 누구나 알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향을 설정하고 표현하라는 것이다. 명확하지 않은 목표와 비전에 자신의 인생을 투자할 어리석은 사람은 많지 않다.

따르는 사람들의 자발적인 충성심을 이끌어내기 원하는 리더라면, 명확하게 비전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 구성원들과 조직을 한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어야 진정한 리더이다.

오늘날 현대 교회의 교인들은 목회자의 비전과 철학을 기다리고 있다고 조 목사는 분석했다. 무언가 자신들의 삶을 투자하고 매달릴 비전을 갈망하고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그런 교인들을 끌고 나갈 목회자가 많지 않다는 것이다.

조 목사의 지적처럼 교인들의 평균화가 이루어져 있는지 모른다. 급속한 도시화와 정보화로 인해 전통적인 도시와 농촌의 구분은 의미를 잃은 지 오래이다. 상황 탓, 교인 탓에서 벗어나 따라올 준비가 되어 있는 그들을 제대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참된 리더로 거듭나는 것만이 오늘날 이 땅의 목회자들에게 주어진 과제일 것이다. 

〈김건주 목사〉

Interview

평신도지도자 인터뷰

제자훈련 사역을 통해 얻는 건강한 성도의 삶은 어떤 모습일까? 목회자의 명확한 비전과 철학을 붙들고 제자훈련을 통해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성도들은 지금도 여러 곳에서 열심히 뛰고 있다. 목동 지구촌교회의 세 명의 평신도들도 그런 열정을 지닌 이들이다. 그들의 열정을 들어보자



“나 중심에서
이웃 중심의 삶을 살겠습니다”

- 이재정 권사

지구촌교회 사랑방 목자로 섬기고 있는 이재정 권사는 제자훈련 1기생이다. 이 권사는 92년 당시 담임목사로부터 직접 제자훈련을 받았다는 자부심과 긍지가 대단하다.

조봉희 목사가 늘 훈련생들의 인격을 존중하며 제자훈련을 인도하려 했고, 이런 모습을 통해 이 권사는 많은 것을 배웠다고 한다. 설사 훈련생이 잘못된 답을 해도 상대방이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지혜롭게 인도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다.

90년부터 교회를 다닌 이 권사는 성경공부와 양육훈련을 통해 예수님께 향한 전적인 사랑을 헌신하며 제자훈련을 결심했다고 한다.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을 고백했던 첫 번째 시간은 지금도 잊지 못한다. 그때 받은 훈련 덕에 큐티를 열망하며 말씀을 더 사모하고 삶에 적용하려는 몸부림이 시작되었고, 그 노력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수필 등 글쓰기를 좋아해 혼자만의 시간을 늘 추구하던 이 권사는 자신을 위해 투자하기보다 이웃을 위해 좀더 많은 시간을 투자할 것을 결심했다. 그의 시선은 점점 주변으로 향했고, 이웃에게 관심을 가지며 전화심방을 시작했다. 그것은 현재 그를 지구촌교회 상담실장의 자리까지 인도하는 발판이 되었다. 여러 성도들을 상담하면서 그들의 눈물과 기쁨을 나누는 것처럼 의미있고 귀한 사역도 없다는 것을 깨닫는다.

이 권사는 “이 시대에는 정말 외롭고 상처받은 영혼들이 많아요. 그들을 위해 교회가 치유와 영적 갈급을 채워주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한다. 미소를 지으면서 말하는 그의 얼굴에는 예수님의 모습이 엿보이는 듯했다. 제자훈련의 핵심이 무엇이라는 질문에 이 권사는 “나를 통해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것 아닐까요?”라며 되묻는다.



“훈련을 통해
우선순위가 바뀌었어요”

- 진옥수 집사

새가족반을 섬기고 있는 진옥수 집사는 97년에 교회에 등록하고 그 다음 해에 7기로 제자훈련을 받았다. 여러 가지 좋은 성경 프로그램이 많다는 소문을 듣고 지구촌교회에 왔던 그는 말씀으로 비취 보는 삶과 공동체를 갈망 했는데, 마침 그때 제자훈련과 만났던 것이다.

“훈련을 통해 교회에 대한 주인의식과 소속감이 생겼어요. 서로 동료의식이 생기고 이제 눈빛만 봐도 통해요.”

이제는 제자훈련을 다른 이들에게 적극 추천하며 권장한다. 특히 예배를 등한시하고 기러기 신앙생활을 하는 이들에게 소속감을 갖고 뿌리를 내리라고 권면한다.

“저는 훈련을 통해 우선순위가 바뀌었어요.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살고 싶습니다.”

이제는 세속적인 일에 집착하지 않고, 거룩한 가정을 세우기 위해,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겠다는 진 집사. 제자훈련을 한 문장으로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으니 그는 “나같은 사람도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만드는 훈련”이라고 말했다.



“예수님과와의 참된 만남입니다”

- 김희숙 집사

여러 교회를 방황하면서 슬럼프에 빠진 김희숙 집사의 신앙생활은 그리 쉽지 않았다. 그러나 90년 지구촌교회에 오면서부터 그의 신앙생활이 달라졌다.

그것은 제자훈련 때문이었다. 어느 권사님의 추천으로 시작한 제자훈련. 첫 과를 다루며 나는 자신의 신앙고백과 간증은 본인의 인생을 재정리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한다. 특히 제자훈련을 받으면서 중보기도에 대한 영안이 열리고, 남에게 관심을 갖게 되면서 섬기고 싶은 마음이 치솟았다.

여러 성도들을 병문안할 때나 임종의 순간, 영혼들을 어떻게 만져주고 위로해주어야 하는지 김 집사는 관심을 갖고 지켜보며 많은 것을 배웠다고 한다. “제자훈련을 통해 저는 기도할 수 있게 되었고, 친밀한 믿음의 동역자를 얻게 됐습니다.”

‘제자훈련이 왜 중요하니까?’ 라는 물음에 김 집사는 “제자훈련이야말로 예수님과와의 참된 만남을 이루게 하는 창입니다”라고 덧붙인다. 

〈최우성 목사〉